인구 감소·탈종교 시대, 한국불교 미래를 묻다

종단협, 11월 18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서

조계종·천태종·진각종·태고종 각 종단 포교 전략 등 공유
"대중과 가까이" 변화 공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고 탈종교화 흐름이 일상이 됐다. 한국불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범불교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각 종단은 포교 현황과 전략,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다. 상생의 불교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8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강당에서 '종교 인구 감소시대, 불교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불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계종·천태종·진각종·태고종의 포교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 종단의 포교 정책과 신행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차석부회장 능원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오늘 발표될 내용은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전하고 모두가 함께 걷는 '포교의 길'을 넓히는 일"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각 종단의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포교 방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종단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한다면 한국불교의 내일은 분명 더욱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원장)은 "종교 인구 변화와 종교 환경의 재편 속에 각 종단이 함께 길을 열어 가는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한국불교가 미래세대에게 신뢰 받는 종교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 이미지 제고와 대중화 전략

첫 발제에서 조계종 사서실장 남전 스님은 '종교 인구 감소에 따른 전법 포교 방안'을 주제로 불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을 짚고, 이미지 제고를 통한 불교 대중화 전략을 고찰했다.

남전 스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의례 중심의 산중 종교로 인식해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낯설어 한다"며 "깨달음에 대한 피상적 답변, 한문 중심의 어려운 용어 등도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연령·성별·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교 △출·재가 간 쌍방향 소통 △실용적 신행 콘텐츠 개발 △명확한 교리 전달 및 이미지 제고를 제시했다. 5분 선명상 운동, 문화포교 콘텐츠 확산, 경전·기도의식 한글화, 양력 법회 등 현대인의 생활 주기에 맞춘 실천 포교 전략도 안내했다.

특히 남전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포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연등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 종단협 차원에서 협의 기구를 구성해 불교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적 관심과 시민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전 스님은 "불교는 현대사회의 가치체계 중 세속적 이해를 초월하는 특성과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본래의 기능이 있다"며 "위기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 궁극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사람, 행복으로 이끄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회가 사찰 운영 주체로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불법홍포의 기반과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 천태종립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은 인구 감소 시대에도 천태종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요인을 소개했다.

스님은 "천태종은 삼대지표인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에 기반해 사부대중이 포교의 주체로 함께 종단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157개 사찰 모두 공찰 체제로, 총본산 구인사는 연중 개방돼 입교 교육과 기도 수행이 이뤄지고, 지역 말사는 매월 정기법회를 통해 신행·포교의 장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도회는 사찰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재산 관리·포교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광도 스님은 "공찰 체제는 신도들에게 '우리 사찰'이라는 책임감을 심어 주며, 신도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어 불법홍포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태종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대승보살 4섭법(보시섭·애어섭·이행섭·동사섭)으로 중생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광도 스님은 "천태종도 모두가 보살이 돼 4섭법으로 중생을 포섭하고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해 자신과 모두가 성불,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을 널리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문화·복지·디지털 포교 확대

진각종립 위덕대 전법원장 성제 정사는 '종교 인구 감소와 청년 포교 과제'를 주제로 진각종의 독창적 교리체계와 과제를 분석했다. 진각종은 밀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출가 승려 중심에서 벗어나 재가 교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이 뚜렷한 특색이다.

진각종은 그간 교육·지역·문화·복지·국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대 사회와 접점을 넓혀 왔다. 그럼에도 성제 정사는 "도시화와 생활 패턴 변화로 사찰 중심 구조는 더 이상 사회적 효력이 크지 않다"며 청소년·청년 세대 유인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꼬집었다. 정기적인 사찰 방문의 어려움, 사찰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폐쇄적 운영 구조 등도 포교 확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성제 정사는 "기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젊은 세대 이탈을 막을 수 없으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시도와 교화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교육과 가정의 연계 △젊은 세대 생활 리듬에 맞춘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개발 △사회참여 확대를 향후 과제로 짚었다.

종립 위덕대와 진선여중·고, 심인중·고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불교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심인당·비로자나청소년협회·진각복지재단의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불교'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포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 사업도 확장, 젊은 세대와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성제 정사는 "향후 진각종의 포교는 교육·문화·복지·디지털을 중심축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불교의 미래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마음을 닦고 세상을 밝히는 진각종의 길을 더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법사' 확장으로 인적 자산 축적

동방불교대 교학처장 철오 스님은 태고종의 승가 호지 방안으로 전법사 제도 확장을 제시했다. 태고종은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와 함께 남·여 전법사를 두고 육부대중 체계를 갖춘 유일한 종단이다.

철오 스님에 따르면 태고종의 출가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법사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태고종은 2010년 연평균 150여 명의 출가자를 배출했지만 2020년대 들어 현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대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태고종 출가자와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배출된 정식 승려는 연평균 약 50여 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전법사는 2020년 44명, 2021년 55명, 2022년 45명, 2023년 52명, 2024년 68명이 배출됐다. 연도별로 등락이 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태다.

철오 스님은 "'생활 속 불교 성직자'를 핵심 메시지로 전략적 홍보 방향을 정하고 기혼, 가족불자, 사회 전문층을 대상으로 전법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맛보기 체험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법사가 직접 운영하는 멘토링 사찰을 지정해 지역 커뮤니티를 잇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법사 출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다.

또 도심 소규모 법당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포교도 효과적이다. 태고종 교육원은 불교명상지도사 과정을 개설해 명상·마음챙김·요가 등 치유 기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태고종은 지속적인 지도자 양성으로 마음챙김, 요가, 명상 등 심신 수련 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철오 스님은 "태고종의 포교는 질적 내실화와 지속적인 인적 자산 축적, 현대사회와의 소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종단에서 배출한 전법사를 시민선명상센터나 영산재 문화프로그램에 배치해 활동하게 한다면 교육-인력-콘텐츠가 연결된 순환적 포교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18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강당에서 '종교 인구 감소시대, 불교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불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 종단의 포교 정책과 신행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



조계종 사서실장 남전 스님.



천태종립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



진각종립 위덕대 전법원장 성제 정사.



동방불교대 교학처장 철오 스님.

인도 문화탐방 9일
인도의 주요 관광지만 가는 일정입니다.
출발일 : 2월11일~2월19일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인도 최고의 조각상)-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0만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1월23일 출발~2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2월20일 출발~3월01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출발일 : 1월14일~21일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79만원

남미여행 5개국 18일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빙하, 브라질 이과수폭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 관광지
출발일 : 3월20일~4월06일
▶ 동참금 : 169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시 이후는 1790만원)

동유럽 5개국 11일
동유럽 5개국 헝가리-크로아티아(드브로브니크 포함)-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멋진 코스입니다.
출발일 : 6월01일~6월11일
▶ 동참금 : 549만원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테 여행 10일
돌로미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7월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환상적인 여행 일정입니다.
출발일 : 7월09일~7월17일
▶ 동참금 : 749만원

남프랑스 힐링여행 12일
니스-모나코-액상프로방스-아비뇽-아를-카르카손 등 아름다운 남프랑스만 여행하는 최상의 힐링여행
출발일 : 4월30일~5월11일
▶ 동참금 : 79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6월16일~7월01일
▶ 동참금 : 570만원